

<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절대 주님을 사랑하여 변화되어 휴거되면 안 변한다

본 문 에베소서 6장 24절

히브리서 13장 8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불변의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구원받고 사니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며 진정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주와 지구는 물질세계로서 때가 되면 결국 다 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지만, 그 말은 별이 그만큼 오랫동안 빛나니 영원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의 별도 물질세계에 속한 것으로 결국 때가 되면 다 변합니다. 지금도 오래된 별들은 뜨거운 불덩이가 식어서 결국 빛을 잃고 어둠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1> 오직 성삼위이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은 ‘영’ 들만 영원불변한 존재로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기쁜 일인지, 얼마나 영원한 소망과 희망인지 다시 깨닫고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큰일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변함없

이 사랑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변질되지 말고, 날마다 더 좋은 구원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상1>

삼위체(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 그리고 구원받은 영

<자막> 성삼위체 /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 = 영원불변한 존재

여러분들도 가다가 신앙이 변해 버릴까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 타락으로 변해 버려 주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될 것이고, 혹은 환난 핍박으로 시험에 들어서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될 것이고, 혹은 기도하지 않고 태만하게 살다가 신앙이 변해서 주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될 것입니다.

‘신앙을 열심히 했던 자들도,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가다가 환난 때 악평 듣고 변하고, 세상 사랑으로 변하고, 사랑 타락으로 변했는데, 나 같은 약한 신앙인이 과연 사탄을 이기고 끝까지 이성을 이기며 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한 번 마음이 변하고 빗나가 신앙과 믿음이 깨지고 파선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같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로 늘 근신하며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천적 사탄은 구원받은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가야 합니다. 사탄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행하는 자는 포기하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변하지 않으려면 매일 근신함으로 너희 마음, 생각, 행실을 관리하여라.” 하셨습니다.

< ‘관리’ 는...>

첫 번째, 절대 구원자 예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감사 생활입니다.

네 번째, 자기 책임분담을 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누가 악평하고 핍박해도 사탄의 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면 소외감이 생기고, 육적으로 살게 되고, 사탄과 살게 됩니다.

여덟 번째, 변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홉 번째,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열 번째, 다른 자들의 유혹과 꾀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열한 번째, 절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섭리를 벗어나지 말고 이단 종교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 선생도 이렇게 행하면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 왔습니다. 모두 이같이 하면 땅에서 휴거를 이루는 영이 되고, 주님을 맞을 변화된 영이 되어 영원불변의 영이 됩니다. 고로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서로 좋아해서 100년 가약을 맺고 결혼한 자들이 변해서 서로 헤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로 성격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영원 가약을 맺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겠다고 했던 자들도 마음이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가 게으르고, 태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부답게 행하지 못하여 주님과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며 탄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님과 주님이 보내신 자 외에 다른 데로 한눈을 팔고

살다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사탄의 울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변의 영이 되려면 생명의 말씀을 생명시하고 믿고 행하며 주님과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면 구원이 변합니다. 다시 무섭게 회개하고 결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육만 봐서는 구원이 상실됐는지 모릅니다. 영을 봐야 압니다.

절대적 신앙, 마음, 행실, 말씀을 가진 자는 사탄도 틈을 못 타고, 주님과 일체 되었으니 범죄 할 수도 없습니다. ‘타락’도 자기가 했으니 ‘복직’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복직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타락도 점점 했으니 복직도 점점 하는 것입니다.

선생도 ‘구원’을 위해 사람들의 짓값과 시대의 짓값을 대신 받고 있지만, 대신 죄 짐을 지고 회개해 주고 그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간 영이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금방 생명권으로 나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시키는 자도 몸부림을 치고 구원받을 자도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온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자기 영이 사망권에 있는지, 생명권에 있는지 주님께 확인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 영은 사망으로 가 있습니다. 형제를 다시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망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 영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사망권에서 안 내보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자기 성격대로 그저 보통 화풀이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로 그 영이 사망에 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회개하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단코 사망에서 못 나옵니다.

주님께 거짓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것은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성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성, 즉 천국 주관권 밖을 말합니다.

주님께 거짓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몸으로 쓰이는

선생에게 거짓말하면 주님께 거짓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모두 천국 성 밖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천국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법이 엄할수록 그만큼 우리 영이 천국급으로 구원받기에 안전합니다. 법이 엄하지 않고 무질서하면 사탄들이 다 잡아채 잡니다. 기성과 세상은 하나님의 최고 법인 ‘이성 사랑 법’을 모르니 지키지 못하여, 그저 성적 사랑이 축복인 줄 알고 기빠하고 좋아하며 행하다가 타락함으로 사탄과 함께 사망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생이 10대 때부터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나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에 다녀도 누구보다 깊이 기도하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은 아무리 고생되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고로 사탄의 울무에 안 걸리고 주님 품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삶을 살아야 끝까지 승리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엄하게 법을 주어 자녀를 관리하면 자녀가 이성 타락, 술, 담배, 오락, 게임, TV에 중독되지 않고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하게 법을 주면서 생명들을 관리해야 생명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아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2> 기성 교회를 보면 이성 타락, 술, 담배, 세상에서 놀고 어울리는 것은 특별히 관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고로 기성은 교회는 크고 웅장해도 젊은이들이 남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법을 안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 사탄이 젊은이들을 다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영상2>

이성 타락, 술, 담배, 세상에서 놀고 어울리는 모습

사탄이 젊은이들을 끌고 가는 모습

(설교 내용 속도에 맞춰서 영상 제작)

섭리사는 술 담배는 물론이고 콜라와 라면까지도 언급하며 먹지 말라고 하니 모두 너무 심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술, 담배, 콜라, 라면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안 다녀도 의학과 건강에 상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들은 안 먹습니다. 모두 뉴스를 봤지요? 술, 담배, 각종 좋지 않은 것들을 먹어 1년에 수십만 명씩 병들어 고통 받고 죽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관리 안 할 것입니까? (* 화면을 볼까요?) <영상3> 영원불변의 영을 만들려면 주님의 말씀에 가지고 자기 육신을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육신이 살아 있을 때가 자기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 때입니다. 만일 육신이 병들거나 일찍 죽으면, 자기 영혼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데 100배, 1000배 더 힘이 듭니다. 육신이 죽고 영의 몸으로 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상3>

<도표> 육을 통해 영이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모습

영과 육이 같이 행하며 만들어지는 모습

섭리사에 법을 엄하게 준 것은 축복입니다. 중심자가 20년간 기도하고, 50년 동안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했기에 주님께서 깊고 높은 차원에서 사는 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새 역사이기에 주님께서 새 역사 차원에 따라 더 온전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에 신부의 법을 주셨고, 우리 육의 행실을 통해

우리 영이 구원받아 천국의 가장 핵심지에 가도록 천국의 깨끗한 법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써 놓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선생은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법 외에도 나를 위해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온전하려면 자세한 법까지 지켜라. 마치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 자세히 붓이 가듯, 조각가가 조각할 때 자세히 손이 가듯,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자세히 손이 가듯, 너희도 자세한 법까지 지켜라. 나는 세밀한 것까지 법을 주니 너희는 너희 영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깊이 깨닫고 법을 지켜라. 이 법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서 너희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안전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영상4>

* 설교 속도에 맞춰서 영상 제작

<자막> 더욱 온전하려면 자세한 법까지 지켜라.

- 초상화를 그릴 때 자세히 붓이 가는 모습

<자막>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 자세히 붓이 가듯

- 조각가가 조각할 때 자세히 손이 가는 모습

<자막> 조각가가 조각할 때 자세히 손이 가듯

-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자세히 손이 가는 모습

<자막>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자세히 손이 가듯

- 우리가 행하는 모습

<자막> 너희도 자세한 법까지 지켜라.

이제 주님이 더욱 깊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짧게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고로 깊이 있게 잘 새겨들으라고 영상 화면이 없습니다. 귀

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잘 듣기 바랍니다.

<영상5>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너희는 그릇 변할 가능성이 많고, 그릇 변하지 않는 자라도 더 좋게 변화되지 않고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많다.

너희가 변치 않고 구원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을 지켜야 하며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 변하면 안 된다. 내가 보낸 자를 사랑하는 것도 변하면 사탄이 침범하여 사랑을 무너뜨려 지금까지 쌓은 공적과 구원을 무너뜨린다.

절대 ‘사랑’ 위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이다. 절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시대 나의 신부로서 휴거의 영이 될 수가 없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사랑의 법이다. 사랑이 깨지면 만사가 다 깨진다. 사랑으로 만사가 다시 회복된다.

영원불변의 영이 되는 데도 절대 나 예수를 진실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 영이 구원받으면 우주의 수명보다도, 지구의 수명보다도 더욱 길다. 영원불변하게 된다. 나 예수를 절대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며 사는 자는 복 있는 자요, 영원히 행복한 자다.

너희 선생이 기도만 해서 이 시대 나의 사랑의 인봉을 떼는 것이 아니다. 절대 믿음 위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행함으로 깨달아 이 시대 성경의 인봉과 사랑의 인봉을 떼는 것이다. 고로 너희도 절대 믿음 위에 나의 사랑의 법을 행해야만 사랑의 도를 깨우쳐 준다.

성경의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이룬 자는 모든 것을 이룬 자다. 그 사랑이란,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 선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성경을 풀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나의 첫 신부가 되어 신부 시대 역사를 열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땅에

서 육에 속한 나의 재림을 표상으로 맞은 첫 신부가 되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이 시대 나의 육이 되어 나의 일을 행하게 되었다.

나 예수와 너희 선생이 아무리 너희를 사랑해도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부활되지 않아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될 수 없고 신부로 변화될 수 없다. 너희도 변함없이 나 예수를 사랑하여라.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변했다 하면 너희 사랑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온전한 영이 되지 못한다.

육에 속하여 잘 변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위해 수시로 기도하고 관리하며, 그릇된 행위를 허락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변하는 자들을 잡아 주고 이끌어 주어라. 사탄이 손대는 자는 사탄에게 조건 잡히지 않은 자가 이끌어 내면 사탄을 이기고 생명을 끌어낼 수 있다. 사탄은 조건 잡히지 않고 틈이 없는 자에게는 다스림을 받는다.

섭리사가 ‘사랑 법’이 엄한 이유가 있다. 사탄은 사랑으로 유혹하여 구원을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시대 나의 재림을 위한 뜻을 이루려면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해서 처음 몇 달 같이 사는 때같이, 연애하는 때같이 첫사랑을 지키며 나 예수와 같이 사는 것이다. 마음도 생각도 몸도 나 예수를 첫사랑 때와 같이 대하면서 같이 사는 것이다. 늘 나를 찾고, 부르고, 이야기하고, 손잡고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나 예수는 영이지만, 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늘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말한 대로 이 말을 실천해야 나의 참된 신부다. 그러면 내가 영체로서 육체같이 너희를 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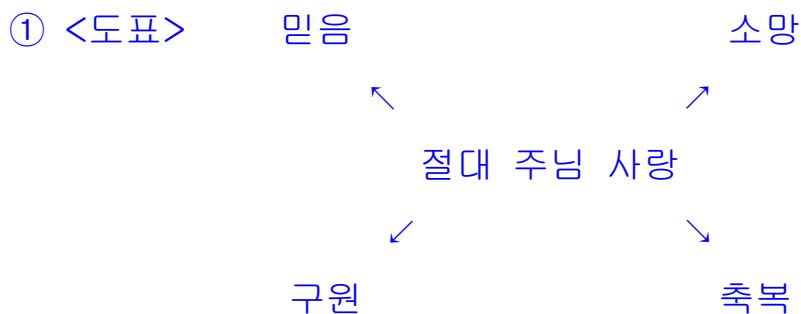
나이가 적은 자들은 육적 사랑에 더욱 유혹이 많으니 너희 마음과 행실을 잘 지키고, 나 예수를 우선권으로 사랑하는 법을 꼭 지키기 바란다. 또 나이가 **많이** 든 자들도 육적 사랑의 유혹에서는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역시 나 예수와의 사랑 법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에게든지

최고의 법은 나 예수를 최우선권으로 사랑하는 법이다. 세상 어떤 것도 내 앞에 우선이 되는 것은 없다. 나를 사랑함으로 나와 일체 되고, 나를 사랑함으로 나 예수와 함께 생명길로 가게 된다.

변하지 말아라. 너희가 변할까 봐 나는 늘 마음을 졸인다. 변하면 너희를 향해 예정된 것도 변하게 된다. 변심하지 않고 더욱 온전히 좋게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나 예수를 위해 너희 자신을 위해 나의 말을 행하고, 항상 첫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살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변치 말라고 말한 사랑하는 주 예수다. 샬롬!

<영상6>



<자막과 말씀> 절대 ‘사랑’ 위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이다.

②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영이 신부로서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 모습
<자막과 말씀> 나 예수를 절대 사랑하는 자는 나의 신부로서 휴거의 영이 되어 영원불변하게 된다.

③ 하트(사랑)가 깨지는 것

<자막과 말씀> 사랑이 깨지면 만사가 다 깨진다.

하트(사랑)가 이루어지는 것

<자막과 말씀> 사랑으로 만사가 다시 회복된다.

④ 예수님 인사

<자막과 말씀> 사랑을 이룬 자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다. 절대 믿음 위에 나 예수를 사랑하며 나의 말을 실천하여라. 샬롬!